

<p>The world is full of bad theology. On television a preacher of prosperity says, “Be healed! Jesus died for your disease on the cross!” In certain articles, leading evangelicals are confused about whether justification comes by faith alone or not. Then add all the errors of non-Christian religions such as the fanciful speculations of the New Age or the dangerous views about Jesus in the cults. The world is full of untrue, unsound, unbiblical theology. Where does it all come from?</p>	<p>세상은 나쁜 신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번영 설교자는 TV 에 나와 “치유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일부 기사들에서, 복음주의 지지자들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믿음 하나만으로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 혼란스러워 합니다. 그런 다음, 모든 비기독교적 종교들의 오류인, 뉴에이지의 공상적인 추측들이나 컬트 집단의 예수님에 대한 위험한 견해를 덧붙입니다. 이 세상이 사실이 아닌, 부적절한, 비성경적인 신학으로 가득합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에서 비롯하는 것일까요?</p>
<p>1. <u>Apostasy Ahead</u> Having explained the mystery of godliness at the end of chapter 3, Paul goes on in chapter 4 to explain the mystery of ungodliness, telling Timothy and the church to expect bad theology: “The Spirit clearly says that in later times some will abandon the faith” (4:1a). Notice that this is not simply Paul’s analysis of the church – it is a prophecy of the Holy Spirit. It may refer to a private revelation given to Paul himself or to a pronouncement made by a prophet in the early church, which had become common knowledge around the churches (e.g. Acts 11:27f; 21:10-14). Paul may even have been recalling the words of Jesus Christ: “At that time many will turn away from the faith and will betray and hate each other, and many false prophets will appear and deceive many people” (Matthew 24:10-11). The living voice of the Holy Spirit testifies in no uncertain terms that although Christians may be saddened by false theology, they should never be surprised by it.</p>	<p>1. <u>앞서 예상된 배교</u> 3 장의 마지막에서 경건의 비밀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4 장에서 경건하지 못함의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 디모데와 교회에게 나쁜 신학이 예상됨을 말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4:1a). 이것이 단지 교회에 대한 바울의 해석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 이는 성령의 예언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주어졌던 사적인 계시 또는 교회들 사이에서 주지의 사실이었던, 초대 교회의 선지자의 예언으로 간주될 지도 모릅니다 (예, 행 11:27f, 21:10-14). 바울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마 24:10-11). 성령의 살아있는 음성은 비록 크리스천이 거짓 신학에 애석할지 모르나, 절대 이에 놀라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증언합니다.</p>
<p>The technical theological term for abandoning or departing from the faith is “apostasy” from the Greek word, “apostasia”. One scholar has defined such apostasy as “the serious situation of becoming separated from the living God after a previous turning towards him, by falling away from the faith”. Apostasy does not mean that believers who have saving faith can lose it. This would be an impossibility since every sinner who receives the gift of saving faith is preserved by the Holy Spirit until the day of Christ (John 10:28; Philippians 1:6). What apostasy does mean, however, is that someone who once claimed to be a Christian has renounced the gospel. One of the distinguishing marks of the later times is that people who call themselves Christians will forsake the Christ of authentic Christianity.</p>	<p>믿음을 버리는 것 또는 이에서 벗어남에 대한 전문적인 신학 용어는 그리스어 “apostasia”에서 파생된 “배교”입니다. 한 학자는 배교를 “이전에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던 자가 믿음을 버림으로써 그에게서 분리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배교란 구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는 자가 이 믿음을 잃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의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모든 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날까지 성령께서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요 10:28, 빌 1:6). 그러나 배교가 뜻하는 바는, 한 때 크리스천이 되기를 표방했던 자가 복음을 포기했다 라는 것입니다. 후일에 대한 특징적인 표식의 하나는 스스로를 크리스천으로 부르던 자들이 진짜 기독교의 그리스도를 저버리게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p>

<p>When will these later times be? Well, they must include Paul's own day, since he is writing about these things in explanation of the false teachers at work in Ephesus. We are living in the last days. These are the later times. These are the last days, which, as John Wesley said, “extend from our Lord's ascension till His coming to judgment”. If these are the later times, then apostasy is to be expected. When someone abandons orthodox Christianity it should not throw our faith into question. Rather, it proves the truth of Scripture “that in later times some will depart from the faith” (4:1)</p>	<p>그 후일은 언제가 될까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거짓 선생들의 설명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시대 또한 이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 후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승천으로부터 연장되어 심판을 위해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존 웨슬리가 언급한 대로, 이는 마지막 날들입니다. 만일 이것이 그 후일이라면, 배교가 예상되어 질 것입니다. 누군가가 정통 기독교를 포기할 때, 우리의 믿음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이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4:1)라는 성경의 진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p>
<p>2. <u>Deceiving Spirits and Hypocritical Liars</u> Paul goes on to explain that such apostasy comes from bad theology. And bad theology has 2 sources, the first of which is positively diabolical. Those who abandon the faith do so by following “deceiving spirits and things taught by demons” (4:1b). There are two errors to avoid when thinking about demons. The first is to give the devil more than his due. Some Christians think that there are demons lurking behind every door. On occasion, God may allow fallen angels to manipulate the physical universe or to tempt human beings to commit sin. But demons do not and cannot have control over anyone who i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The truth is that Jesus Christ has defeated the devil and all his helpers on the cross of Calvary. The opposite error, however, is to deny that demons exist. The devil and demons do exist. Spiritual warfare is as real today as it was in the day when Jesus was on earth. Paul speaks of that warfare in Ephesians 6. Behind all anti-Christian systems demonic forces are actively engaged. This struggle will continue until the Day of Judgment, which is why the Lord Jesus instructs his disciples to pray every day for deliverance from the evil one (Matthew 6:13).</p>	<p>2. <u>미혹케 하는 영들과 위선적인 거짓말쟁이들</u> 바울은 이러한 배교가 나쁜 신학으로부터 비롯한다고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나쁜 신학은 두 가지의 근원이 있는데, 그 중 첫 번째는 분명히 악마적입니다. 믿음을 저버린 이들은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을 가르침을” 따름으로서”(4:1b) 믿음을 버립니다. 귀신에 대해 생각할 때 피해야 할 두 가지의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악마를 주어진 것 이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부 크리스천들은 모든 문 뒤에는 악마가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이 물리적인 우주를 조종하거나, 인간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기를 허락하실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악마는 성령에 감화된 그 어떤 이도 조종하지 않으며, 조종할 수 없습니다.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마와 악마의 모든 조력자들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오류는 악마가 존재함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악마와 귀신은 존재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만큼이나 오늘날에도 실존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 장에서 이 전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악마적인 영향력은 모든 반 기독교적 체계 이면에서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투쟁은 심판의 날까지 계속될 것이며, 이것이 주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악에서 구하기 위한 기도를 매일 하도록 권면하신 이유입니다 (마 6:13).</p>
<p>The main reason Christians need daily spiritual protection is the deceitfulness of the devil. Jesus called Satan “a liar and the father of lies” (John 8:44). Believers are thus warned not to believe every spirit, but to test the spirits “to see whether they are from God, because many false prophets have gone out into the world” (1John 4:1). Satan was a deceiver from the very beginning. We see that as he came to</p>	<p>크리스천들에게 매일 영적인 보호가 필요한 주된 이유는 악마의 기만성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요 8:44)라고 명명하셨습니다. 때문에 믿는 자들은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p>

<p>Eve in the form of a serpent in the Garden of Eden – hinting to her that God was stingy, thus denying God's goodness and then telling her that she would not die if she ate the fruit of the tree, thus denying God's justice. If Satan's favourite strategy is deception, it follows that the church is in real danger of being fooled by false doctrine. Most false doctrines contain enough truth to resist detection. The most dangerous heresies often sound the most like authentic Christianity. For example, the distortions of Roman Catholicism hide behind the truth of the value of good works. The lies of Mormonism hide behind the truth of family values. Every false doctrine tries to find some truth to hide behind. The deceptiveness of false doctrine teaches every Christian to be wary. The discerning Christian does not read every so-called Christian book, listen to every so-called Christian radio program or online sermon, or enter every so-called Christian church, but is wary enough to be on guard against deceptions of Satan and his henchmen.</p>	<p>나왔음이라”(요일 4:1)고 주의를 받습니다. 사탄은 애초부터 사기꾼이었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형태로 이브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이 인색하다는 암시를 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고, 그런 다음 그녀가 나무의 과일을 먹는다고 해도 죽지 않을 것임을 말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사탄이 선호하는 전략이 속임수라면, 결과적으로 교회는 거짓 교리의 수에 넘어가게 되는 진정한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이단들은 종종 가장 정통적인 기독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로마 가톨릭의 왜곡은 선행의 진정한 가치 이면에 덮여 가립니다. 물문교의 거짓말들은 가족 가치관의 진실 뒤에 숨깁니다. 모든 거짓 교리들은 그 이면에 숨기 위해, 일부 진리를 찾고자 합니다. 거짓 교리의 기만성은 모든 크리스천에게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통찰력 있는 크리스천은 소위 기독교 서적이라 불리는 책 모두를 읽지 않고, 이른바 기독교 라디오 방송 또는 온라인 설교라고 불리는 모든 것을 듣지 않고, 소위 크리스천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 모두에 참석하지 않지만, 사탄과 그의 심복의 속임을 경계하기 위해 충분히 조심합니다.</p>
<p>However, Paul is far from laying all the blame for these false teachings on the evil spirits and demons, for he goes on “such teachings come through hypocritical liars, whose consciences have been seared as with a hot iron” (v.2). The evil spirits that are active in the propagation of false teachings and evil practices could gain nothing without the willing co-operation of human agents. Hypocrisy explains why heresy is so deceptive. Many false teachers are good actors. They know how to play the part of a Christian. The human teachers are hypocrites because they proclaim one message and live another, and liars because they propagate teachings they know to be untrue. Eventually, liars start to live their own lies. They do not even realize they are lying any more, for their “consciences are seared”. Because conscience functions along with the moral law, it has a restraining effect on human behaviour under normal circumstances. Sometimes when skin is burned or seared it becomes insensitive, almost as if anaesthetized. Once the nerves have been deadened, the skin is no longer able to feel pain. The same thing can happen to the human conscience. It can become cauterized by sin. The more a person sins, the less painful it seems, until through repeated and wilful acts of sinning, the conscience can become deadened to such an extent that it virtually ceases to function.</p>	<p>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거짓 가르침들에 대한 모든 책망을 악의 영과 귀신에게 넘겨 씌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2 절)고 합니다. 거짓 가르침과 악습의 전파에 적극적인 악의 영들은 인간의 대리인들과 기꺼이 협력을 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위선은 왜 이단이 매우 기만적인지를 설명합니다. 많은 거짓 선생들은 훌륭한 배우입니다. 그들은 크리스천 역을 어떻게 해낼지를 압니다. 인간 선생들은 어느 한 말씀을 전하고 다른 말씀에 거하기 때문에 위선적이며,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 가르침을 전파하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거짓말쟁이들은 결국 자신들의 거짓말 속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심지어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더 이상 깨닫지 못합니다. 양심은 도덕 규범과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환경에서 인간의 행동에 구속 효과를 가집니다. 가끔 피부가 햇볕에 타거나 그을리는 경우, 피부는 둔감하게 되고, 거의 마취가 된 듯해집니다. 신경이 죽게 되면, 피부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와 동일한 일이 인간의 양심에 생길 수 있습니다. 양심이 죄에 의해서 지저질 수 있습니다.</p>

	<p>사람이 더욱 죄를 지을수록, 덜 고통스러운 듯 해지며, 반복되고, 고의적인 죄를 짓는 행동을 거칠 때까지, 사실상 기능을 중단할 정도로 양심은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p>
<p>Now you can see why Paul so frequently reminds Timothy to keep his conscience clear. His goal is for Timothy to have love which comes from “a pure heart and a good conscience and a sincere faith” (1:5). He urges him to keep “holding on to faith and a good conscience” (1:19). Paul wants every Christian to be as conscientious as he was himself for in his second letter to Timothy he testified that he served God “with a clear conscience” (2Timothy 1:3). I exhort you to guard your conscience so that it remains sensitive to the least offence against the holiness of God.</p>	<p>이제 여러분은 바울이 왜 그렇게 자주 디모데에게 그의 양심을 분명히 하라고 상기시켰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디모데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1:5) 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1:19)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그가 “청결한 양심”(딤후 1:3)으로 주님을 섬겼음을 진술하며, 모든 크리스천이 그 처럼 양심적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양심을 지키시어 신실하신 주님께 대한 가장 최소한의 죄에도 여전히 예민하기를 간곡히 권고합니다.</p>
<p>3. <u>The Ascetic Life</u> As we come to verse 3, Paul starts to get specific by telling us that the false teachers in Ephesus believed that celibacy and vegetarianism were necessary for salvation: they “forbid people to marry and order them to abstain from certain foods, which God created....” (v.3a). There is nothing wrong, in principle, with being single or a vegetarian or both. God calls some individual Christians to remain unmarried or to refrain from certain foods for a time. The trouble comes when these or other matters of relative indifference are treated as essentials of the gospel. This legalistic mindset is often a problem in the church – as became the case with the false teachers in Ephesus. They had committed themselves to one particular diet and one particular lifestyle. Now there is nothing wrong with remaining single or with fasting. Nor is there anything wrong in principle with private vegetarianism. The trouble came when the false teachers decided that what was good for them was good for everyone. They tried to require every Christian to adopt their practices for abstaining from sex and food.</p>	<p>3. <u>금욕적인 생활</u> 3 절에 이르러,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의 거짓 선생들이 구원에 있어 금욕주의와 채식주의가 필수적이었음을 믿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함으로써 더욱 구체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3a 절). 원칙적으로, 미혼이거나 채식주의자 또는 이 두 가지 모두에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부 크리스천들을 독신으로 지내거나 또는 한동안 특정한 음식을 삼가도록 명령하십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 또는 상대적으로 사소한 문제들이 복음의 필수 조건들처럼 다루어 질 때 생깁니다. 이러한 율법적인 사고방식은 에베소의 거짓 선생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종 교회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들은 한가지 특정한 식습관과 생활방식에 전념했습니다. 오늘날, 미혼이거나 금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채식주의의 원칙에 잘못된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거짓 선생들이 자신들에게 유효한 것을 모든 이들에게 유효한 것이라고 정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모든 크리스천이 성과 음식을 삼가하는 그들의 행위를 받아들이기를 강요했습니다.</p>
<p>Apparently, these false teachers taught that meat and marriage were inherently sinful. This passage mentions “certain foods” without specifying what they were. Perhaps this is a reference to Jewish dietary customs which came from the Mosaic law. Yet</p>	<p>이러한 거짓 선생들은 명백히 육식과 결혼이 본질적으로 죄스러운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구절은 이것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어떤</p>

<p>elsewhere – especially in Rome (Romans 14:2, 21) and in Corinth (1Corinthians 8:13) – the controversy in the church concerned eating meat. Whatever the precise practices may have been, the single best word to describe this kind of theology is “ascetic”. An ascetic is a person who practices severe self-discipline and abstains from all forms of pleasure, especially for religious or spiritual reasons. By forbidding marriage and changing their diet, some members of the Ephesian church were denying the pleasures of sex and food, and at the same time saying that physical self-denial was essential to a person’s standing before God. In his commentary, John Stott explains the ascetic mindset like this: “From the beginning of church history some teachers..... have argued that sex and hunger are themselves unclean appetites, that the body itself is a nasty encumbrance (if not actually vile), and that the only way to holiness is abstinence, the voluntary renunciation of sex and marriage, and, since eating cannot be given up altogether, then at least the renunciation of meat”. There has, for example, long been an ascetic tendency in Roman Catholicism. This explains the existence of monasteries and why Catholic priests are forbidden to marry. It is also the reason why orthodox Catholics refuse to eat meat during Lent.</p>	<p>음식물”이라고 언급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서 유래한 유대인들의 식습관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로마(롬 14:2,21)와 고린도(고전 8:13)와 같은 다른 곳들에서, 교회에는 고기를 먹는 것에 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관례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이러한 신학을 설명하기 위한 가장 좋은 한 단어는 “금욕”입니다. 금욕적인 사람은 아주 철저한 자기 수양을 수행하는 사람이며, 특히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이유로 모든 형태의 쾌락을 삼가는 사람입니다. 결혼의 금지와 식습관의 변화에 의해 에베소 교회의 몇몇 구성원들은 성과 음식의 즐거움을 거부했으며, 동시에 물리적인 금욕은 하나님 앞에 개인의 지위에 있어 필수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존 스토틀은 그의 해석에서 금욕적인 사고방식은 다음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교회 역사의 초기부터 일부 선생들은.....성욕과 식욕은 그 자체로 부정한 욕구이고, 신체 자체는 추잡한 방해물이고 (실제로는 끔찍하지 않더라도), 신성함의 단 하나의 길은 금욕이며, 성과 결혼의 자발적인 포기 선언과 아예 먹지 않을 수는 없기에, 적어도 육식을 금지하는 것들에 대해 논쟁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가톨릭 교회에는 오랫동안 금욕적인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이는 수도원이 현존함과 가톨릭 신부들에게 결혼이 금지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또한 정통 가톨릭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p>
<p>What is wrong with a little asceticism? One problem with self-denial is that it is often used as a way to become self-righteous. Calvin accuses the false teachers in Ephesus of trying “to acquire righteousness for themselves by abstaining from those things which God has left free”. Another problem with ascetic Christianity is that it rejects God’s good gifts. When they are used in a lawful way, both food and sex are meant for joy. God himself created them “to be received with thanksgiving by those who believe and know the truth” (v.3b). Consider marriage. The Bible teaches that marriage is a divine gift, a creation ordinance, ordained by God the Father (Genesis 2:24) and blessed by God the Son (Matthew 19:4-6). Therefore, marriage is to be received with thankful joy. The Puritans offer many good examples of how to appreciate the gift of marriage. Contrary to popular opinion, they were not puritanical about sex. They prized marriage, including its sexual aspect. Like marriage, food is one of God’s good gifts. Christians are allowed to eat whatever foods they please. Paul’s reasoning is very straight forward: what God has</p>	<p>약간의 금욕주의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금욕의 한가지 문제점은 이것이 종종 스스로 의로워지는 방법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에베소의 거짓 선생들의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두신 것들을 절제함으로써, 스스로 의로움을 얻기 위한” 시도를 비난합니다. 금욕적인 기독교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적인 태도로 사용될 때, 음식과 성 모두는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셨습니다(3b 절).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결혼은 신성한 선물이며, 성부 하나님이 명하시고(창 2:24), 성자 하나님이 축복하신(마 19:4-6) 창조 질서임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감사의 기쁨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청교도들은 결혼이라는 선물을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좋은 예제들을 제시합니다. 대중적인 의견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은 성에 대해</p>

<p>made, we may eat. This is one very practical consequence of the doctrine of creation: “For everything God created is good” (v.4a).</p>	<p>청교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결혼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결혼처럼,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 중 하나입니다. 크리스천에게는 그들이 좋아하는 어떤 음식이든지 이를 먹는 것이 허락됩니다. 바울의 추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창조 교리의 매우 실질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4b 절).</p>
<p>The proper way to receive the good gifts of creation is “with thanksgiving”, which is Paul’s favourite term to express gratitude to God. Gratitude is so important that you will note that he mentions it twice in vv.3-5. There are two important qualifications here. The first comes from the doctrine of redemption. Followers of Christ must be the most grateful people of all. Christians are here defined as “those who believe and who know the truth” (v.3b). To believe is to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and the Saviour of the world. It is to trust in his death on the cross and resurrection from the grave for salvation. True gratitude is a response to saving grace. It begins with thanksgiving for the gift of eternal life through Jesus Christ. The other qualification comes from the doctrine of creation. Paul does not say that everything is good. He says that “everything God created is good” (v.4a). What God made is good, but there is always the danger of corrupting what God has made. Christians are to enjoy life to the fullest, but it is not “anything goes!” One way to test if we are using God’s gifts properly is to ask the question: “Can I thank God for what I am doing right now without being ashamed of myself?” Furthermore, true gratitude leads to generosity. Christians who keep their food to themselves – or keep the benefits of family life to themselves, for that matter – are not receiving God’s gifts with thanksgiving at all.</p>	<p>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받는 적절한 방법은 “감사함으로”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바울이 선호하는 표현입니다. 감사는 아주 중요해서, 여러분께서는 그가 이를 3 절~5 절에서 두 번이나 언급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교리에서 비롯합니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모든 이들 가운데 가장 감사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크리스천들은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3b 절). 믿는 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세상의 구원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 상의 그의 죽음과 그가 구원을 위해 죽음으로부터 다시 사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선물에 대한 감사로 시작됩니다. 다른 조건은 창조의 교리에서 비롯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말합니다(4a 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선하지만, 그가 지으신 것에는 항상 변질의 위험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최대한으로 삶을 즐길 수 있으나, “무엇이든지 상관없게!”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적절하게 사용하는지를 시험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다음의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부끄러워함 없이,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더욱이, 진정한 감사는 너그러움으로 이어집니다. 이 점에 대해, 자신들만을 위하여 자신의 양식을 지키는 크리스천들 – 또는 자신들만을 위해 가족들의 이익을 챙기는 크리스천들은 결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p>
<p>When Paul speaks about thanksgiving, he may be referring to the practice of saying grace before meals. One way to receive food with thanksgiving is to do what the Lord Jesus did: offer a prayer of thanksgiving before eating it. In Mark’s Gospel we overhear Jesus giving thanks for the loaves and the</p>	<p>바울이 감사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식전 감사 기도 관례를 언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감사함으로 음식을 받는 한가지 방법은 주 예수께서 하셨던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p>

<p>fish (Mark 6:41, 8:6), as well as for the bread and the wine of the Last Supper (Mark 14:22-23). Paul goes on in v.5 of 1Timothy 4 to describe giving thanks for food as a consecration: “because it is consecrated by the word of God and prayer”. Praying before a meal does not make the food any more holy than it already is, but saying grace is a way of acknowledging that daily bread is a sacred gift. What does Paul mean by “the word of God” in verse 5? The Jews often used Scripture when they said grace. So Paul is telling us that a prayer of thanks, like other prayers, should normally make use of the word of God in Scripture and in the gospel. The everyday acts of eating and drinking should then become for the Christian acts of an enlightened faith, free from anxiety, and enjoyed in freedom. As Paul wrote to the Corinthians, “So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1Corinthians 10:31). Giving thanks, however, is not just for meal times. Gratitude is a whole way of life. We Christians ought to give thanks to God for every good thing. God is indeed to be praised for everything he has created.</p>	<p>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의 빵과 포도주 뿐만이 아니라(막 14:22-23), 빵과 생선에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막 6:41, 8:6). 바울은 디모데전서 4 장 5 절에서 성별(聖別)로서 음식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에 대해 서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이라”. 식전 기도가 원래 보다 그 음식을 더 신성하게 하지는 않지만, 기도를 드리는 것은 매일의 양식이 신성한 선물임에 감사를 표하는 방법입니다. 5 절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울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기도 드릴 때, 종종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기도들과 마찬가지로, 감사 기도는 일반적으로 성경과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상의 행동들은 깨달음에 이르는 완전한 신앙에 대한 크리스천의 행위가 되어야 하며, 이는 염려로부터 자유롭고, 자유로이 향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적은 대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전 10:31). 그러나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저 식사 때 만이 아닙니다. 감사는 모든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모든 선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그가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해 찬양 받으셔야 합니다.</p>
<p>Finally, gratitude is essential to sound theology. Thanksgiving is so important to daily Christian life that anyone who rejects God’s good gifts runs the risk of abandoning the faith. A good example of the way sound theology depends upon a grateful heart comes from the early days of the Swiss Reformation. Shortly before Easter in 1522, several printers scandalized the city of Zurich by eating meat during the traditional Catholic fast for Lent. The printers decided to do this for two reasons. One was practical. They performed such hard physical labour that they felt they needed to eat meat to keep up their strength. But the other reason was theological. The printers wanted to eat meat in order to make a public declaration of their commitment to the doctrines of the Reformation.</p>	<p>마지막으로, 감사는 바른 신학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감사함은 크리스천의 일상 생활에 너무나 중요하기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부하는 자는 믿음을 저버리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의존하는 바른 신학의 좋은 예는 스위스 종교 개혁 초기에 기인합니다. 1522년 부활절 바로 전, 일부 인쇄업자들은 전통적인 가톨릭의 사순절 금식 기간 동안 고기를 먹음으로써, 취리히 시를 발각 뒤집었습니다. 인쇄업자들은 두 가지 이유로 이를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는 실질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을 했기에,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기를 먹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신학적인 이유였습니다. 인쇄업자들은 그들이 종교 개혁의 신조에 헌신함을 대중에게 선언하기 위해, 고기를 먹고자 했습니다.</p>
<p>To understand this, it helps to know that the Lenten fast in Zurich had become a form of works-righteousness, a way of earning favour with God through self-denial. But the printers knew where bad theology comes from – and where it leads. They</p>	<p>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취리히의 사순절 금식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행함의 형태가 되었고, 금욕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이 되었음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p>

believed that they were saved by grace, not by works. They also understood that “**everything** God created is good, and nothing is to be rejected if it is received with **thanksgiving**” (1Timothy 4:4). Therefore they ate their meat to the glory of God, which, of course, is the way we, who belong to Jesus, ought to do everything.

그러나 인쇄업자들은 어디에서 나쁜 신학이 시작되었는지, 어디에서 이를 이끄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은혜로 구원 받았지, 그들의 행함으로 구원 받지 않았음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딤후 4:4)를 이해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기를 먹었고, 이는 물론 예수님께 속한 우리가 모두 행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Amen

Prepared by Rev. Grant Lawry, Canterbury Presbyterian Church, Canterbury, Melbourne, Australia for use of the Canterbury congregation.